

자신과 싸움 75일... "만물이 웃고 있더군요"

보광 스님 5대 적멸보궁 10보1배 순례 마쳐

“불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웃을 때 나는 행복해 가슴이 뻐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 그와 함께 평평 울게 됩니다. 내가 또 한 번 10보1배 순례를 떠나 누군가 감동한다면 내 몸이 찢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에서 5대 적멸보궁을 10보1배 기도로 순례하기 위해 출현한 떠났던 보광 스님이 3월 16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맑은 얼굴, 한 걸음 한 걸음 더 위엄 있어졌다.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중생의 서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빈손으로 떠났던 지독한 보살이다.

75일간 총 674km 겨울의 한가운데 멀고 먼 길을 따라 기도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많았다. 인적이 드문 숲

길에서 한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기 일쑤였다.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 뒤돌아보니 만물이 웃고 있더군요. 그때 내가 떠나는 걸 실감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했던 힘든 순례가 원만 회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극한 3명의 신장이 있었다. 수줍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직접 케네디 정성껏 다려낸 영험한 약초로 기운을 지켜준 심마니 현담 스님과 험난한 순례길에서 어긋나고 망가진 몸을 바로 잡아준 변유성 기공사,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이수부 거사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적멸보궁인 설악산 봉정암을 향하는 길목 영시암의 한 노장

스님은 맨발로 뛰어나와 보광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메마른 땅에 아직 수행풍토가 살아있구나” 하고 기뻐했다. 이윽고 봉정암 사리탑에 다다랐을 때, 스님은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사리탑 앞에 서니 내가 너무너무 작은 중생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10보1배 기도가 한때 바람으로 잊히는 것이다.

“하얗고 길을 따라 걷고 절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웃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옛날 선승들이 먼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문화를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봉정암 사리탑 앞에서 삼배를 올리는 보광 스님. 사진제공=한철현 사진작가(부산 코닥동아대점 대표)

“초심으로 돌아가 자비실천”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3월 18일 낮 12시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발원문 낭독, 표창패 수여, 장학금 및 단체지원금 전달, 왕선자 회장 인사말, 축사, 수진 스님(前 해인사승가대학장) 법어, 축가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피라미타 소속 금정중학교 재학생 8명과 용호복지관(권장 이춘성),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등 단체 3곳에 전달됐다.

왕선자 회장은 “오직 여성불자로만 이뤄진 모임이다보니 활동을 하는데 기획 및 조직면에서 취약했지만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도와 오늘의 15년이 있을 수 있었다”며 “처음 불교를 만났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늘 부산여성불자회가 앞장서



인사말을 하는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자비를 실천하는데 일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1994년 창립 이후 15년간 170여 회 정기법회 봉행, 군포교 및 교도소 포교, 여성불자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 장학금 전달 및 환경보호, 사찰순례와 사경법회, 대외협력활동, 여성NGO 활동 등으로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박지원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

생명나눔부산본부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3월 12-13일 양일간 동명대학교에서 홍보부스를 마련, 조혈모세포 및 기증에 관한 교육과 기증희망자 접수를 마쳤다. 이날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목종

스님(본부장, 대광명사 주지)은 “젊은이들에게도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주는 소중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생명나눔 부산본부는 향후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부산지역 대학교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051)853-0429 박지원 기자

부산 6대 종교 평화포럼 발족한다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창립준비모임 가져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창립준비모임이 3월 13일 만남을 갖고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부산 6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산시민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범종교인 대화모임 창립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가칭)부산종교인 평화포럼(이하 평화포럼)은 3월 13일 오후 2시 부산불교연합회 법당에서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창립 초임기에 들어갔다.

방영식 목사의 사회로 정여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각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가톨릭 황철수 주교, 원불교 김일상 교구장, 천도교 박호근 교구장 등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교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모임은 각 종교별 목상기원, 창립 취지문 낭독, 조직구상, 회칙 검토, 임원진 조직 및 이사장·초대회장 추대, 사업비전 검토, 창립행사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설립 목적은 “종교간 갈등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파멸을 가져

오며, 어떠한 종교편향정책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숙한 종교는 열린 마음으로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립 취지문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회칙에서 “국민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사회를 통합, 나아가 국가발전과 평화통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

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선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향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종교인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모임과 협력사업 추진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사업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본성 바로보고 생사에서 해탈”

소림사 참회산림

산중 선지식들이 세간에서 법문을 풀면서, 부산 한복판에서 아담법석이 펼쳐졌다.

부산 소림사(해진)는 3월 11-17일 일주일간 매일 오전 10시 참회산림 대법회를 열었다. 그동안 부산불자들이 만나기 어려웠던 해인 스님(단양 광덕사 회주),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고산 스님(하동 쌍계사 조실),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이 법상에 올랐다.

종범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법성과 진성’을 주제로 “죽는 순간은 통증을 있으나 공포가 없는 것이 바로 열반이며, 이 두려움이 바로 아상이기에 우리는 불생불멸의 법성을 믿어야 한다”며 “본성을 보고 생사에서 해탈하자. 법성을 바로보고 자기심으로 돌아가자”고 설했다.

‘참회’에 관한 선지식들의 릴레이 법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법회에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신도들이 몰려들어, 대웅전과 별관까지 가득 메웠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소림사 참회산림 대법회는 매년 음력 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박지원 기자

불교영어 전문강좌 개설

해월정사 3월 18일부터

해운대 청사포 해월정사주지 천제는 불교영어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영어포교의 원력을 세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운영한다.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마련된다. 교재는 성

철 스님 법어집 <이 뭐고> 영문판과 2권으로 영광도서 2층 불교서적코너에서 판매중이다. 접수는 입학원서와 증명사진 2매를 지참, 해월정사 총무소에서 직접 받고 있으며, 입학회비 1만원, 월 수강료는 5만원이다. (051)703-9641 박지원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